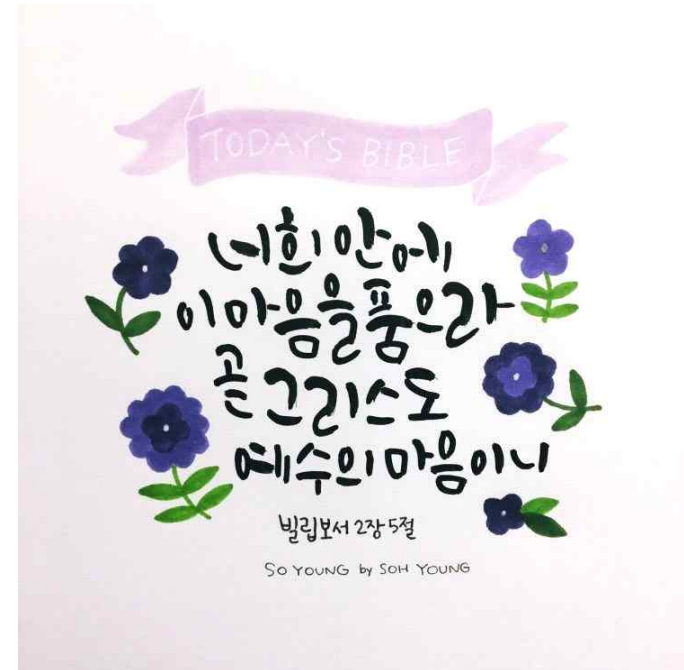


교회소식

1. 오늘은 대림절 네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2. 세례 및 유아세례 문답식: 예배 후 본당에서
3. 성경퀴즈대회(4복음서): 요한복음 예상 문제 첨부해 드립니다. 어린이교회 성경 퀴즈대회 범위는 교재20-22권까지입니다.
4. 성탄절예배: 12월 25일 오전 10시 본당 (성탄감사헌금)
5. 다음 주 예배는 패밀리서비스로 함께 드려집니다.
6. 친교 후에 중등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75
감사 헌금	CD \$60
십일조	CD \$200
장년 출석	17명
어린이 출석	19명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대림절 네번째 주일 예배 순서

여는기도		인도자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눅 2:25-33	인도자
어린이설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김승용 목사
대표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빌 2:1-11	인도자
설 교	이 마음	김승용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 목사

(어린이교회) 베드로전서 4:8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빌립보서 2:1-11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1)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2)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3)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목회자 칼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는 옥중에 갇힌 사도바울이 자신을 위로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하나됨이 있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서의 1주일, 특별히 십자가 상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분의 삶은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자기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실 일 것입니다. 시공 간의 제약 가운데 육신의 제한에 갇힌 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굿간 구유에 누이신 작은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겸손과 희생과 바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자가 오신 목적은 섬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은 결코 갑갑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섬김이 굴종, 혹은 억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위해선 우선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분은 억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 내려오시지 않았습다. 결코 모든 것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스스로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참 억지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마지못해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위와 체면에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는 시늉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섬김에는 늘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 중 첫째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섬김을 받은 대상이 댓기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보상이 없으면 이내 섬김을 포기하고 맙니다.

둘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억지로 하는 섬김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섬김은 숙제와 같은 것이고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입니다.

셋째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쁨 없이 하는 섬김은 내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섬김이 비참하게 여겨지고 섬김을 받는 자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기 보다는 질투와 불평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무척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섬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강도만한 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겸손하게 배려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중엔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길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1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류하는 베드로를 제자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계명을 주신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축복의 사람

작사,작곡 설경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 시온
 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
 의 사람이죠 -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 의 사람이죠 -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
 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 주님 의 이름 높아 질 켜예
 요

축복의 사람

작사,작곡 설경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 시온
 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
 의 사람이죠 -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 의 사람이죠 -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
 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 주님 의 이름 높아 질 켜예
 요

1.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 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이
 2.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 에 감사 하다가
 3.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 로다 우리 도 서로를 사랑하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 여서 헤매던 우리위해 오셨
 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
 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

네 온 땅이 주의 나심기 빼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네 만왕의 왕이 이 땅위에 오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저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 리세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우리들의 연약 함아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 하리 다 선포 하세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115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동 115)

I. Watts (1674-1748)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ANTIOCH: 8.6.8.6.6.8.
G. F. Handel, 1742
Arr. by L. Mason (1792-1872)

1.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2.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3.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
 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관하시니 만국 백

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품 물아 내 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성 구주 앞 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 찬양하여라 다

라 다 찬 양 찬 양 하여 라
 라 다 다 구 답 화 답 하여 라
 라 다 다 경 배 경 배 하여 라 아 멘

찬양하여라 다